

2007. 11. 5 제178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7. 11. 5 제178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미국의 '우수학교' 선정 사업: 뉴욕의 Watson Williams School 사례

[해외출장 리포트]

싱가포르와 스톡홀름의 혼잡통행료 제도

도시경영·경제

1.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서비스 유통세 30% 환급 (브라질 상파울루주)
2. 옛 공항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주민참여 유도 (베를린)
3.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 최고 100만 엔 지원 (요코하마)
4. '워크 라이브 밸런스' 추진기업 인증제도 실시 (도쿄都 신주쿠區)

디지털도시

5. 미술관 건립과정을 웹캠으로 공개 (영국 웨이크필드市)

복지·문화

6. 노인·장애인 전용 콜버스 무료화 (런던)
7. 학교급식 이용률 제고방안 제시 (영국)

목 차

8. 고용보험법 개정 (일본)
9. 고령자를 지원하는 ‘포인트 사업’ 실시 (도쿄都 도시마區)

도시환경

10. 새로운 소음지도 발표 (베를린)
11. ‘이산화탄소 저감’ 전략 확대 시행 (일본)
12. 바이오디젤을 시내버스 연료로 사용 (브라질 캄피나스市)
13. 시민 한 사람이 나무 한 그루 심기 운동 전개 (파리)
14. 수자원 보호지역 24곳 추가 지정 (영국)
15. ‘에코-리사이클 페어’ 개최 (도쿄都 분쿄區)

도시교통

16. 주차요금 전화결제시스템 시범 실시 (시카고)
17.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신호기 시범 운영 (뉴욕)
18. 자전거여행 안내지도 무료 제공 (런던)
19. 뉴욕시장 런던 혼잡통행료 제도 견학 (런던)
20. 수상교통 계획으로 수로감문 건설 (런던)

도시계획·건설·주택

21. 대중교통 중심의 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설 (로스앤젤레스)
22. 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행동기준 수립 (도쿄)

[벤치마킹 사례]

미국의 ‘우수학교’ 선정 사업: 뉴욕의 Watson Williams School 사례

<주요 내용>

- 미국 교육부는 2002년부터 ‘No Child Left Behind: Blue Ribbon Schools Program’을 실시해, 학업성취가 뛰어나거나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놀랄 만큼 향상된 학교를 매년 ‘우수학교’(Blue Ribbon School)로 선정해 표창함.
 - 이 프로그램의 정책목표는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No Child Left Behind)임.
 - Blue Ribbon School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정배경이 열악하거나 소수인종 출신 학생이 40% 이상 포함된 학교여야 함.
 - Blue Ribbon School로 선발된 학교의 공통된 특성은 아래와 같음.
 - 학업에 곤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적시에 집중 개입
 - 높은 기대수준과 학교교육 표준, 엄격한 교육과정 설정 및 교육자원 탐색
 - 교사를 지원하는 행정문화 형성
 - 4학년까지 정규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도록 ‘이중 언어교육’ 실시
 -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학교와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 확보
 -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환경 제공
 - 특정 내용에 강점이나 약점이 있는 학생을 위해 학습수준 조절
 - 뉴욕市 소재 초등학교인 Watson Williams School은 2006년 Blue Ribbon School로 선정됨.
 - 이 학교 학생은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가 많으며, 대부분 가정배경이 열악한 편임. 학생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1> Watson Williams School의 학생 배경(학생 수: 480명)

구 분		비율(%)
출 신	아프리카계 미국인	57
	백인	23
	히스패닉	14
	아메리카 인디언, 아시아, 태평양 도서	7
급식비 감면 학생		96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		11
전학을 가거나 온 학생(2004~2005)		22

- Watson Williams School 교장은 교사에게 ‘성취 문화’를 조성하게 하고 학생의 학습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으며, 학교 전체적으로 통합수업을 시도했음. 그 결과 이 학교의 학업성취도는 매년 향상됨.
- 과학 수업에서 ‘마찰’이라는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댄스 수업과 통합해 「예술 몰입」 과정을 운영함.
- 교사의 직접 지도뿐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도 실시하고 지원함. 또한 학습 조력자를 학교에 배치해 학생의 학습을 도와줌.

<해설 및 평가>

- 미국정부는 ‘No Child Left Behind Act’를 시행해 초등·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하는 데 주력해 왔음.
- 특히 Blue Ribbon School Program은 ‘고소득 저성취 → 고소득 고성취’보다는 ‘저소득 저성취 → 저소득 고성취’로 이끈 학교를 우수학교로 선정함으로써, 가정배경이 열악한 학생이 많은 학교를 개선해 이들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하고 나아가 미래의 사회적 지위 향상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사업은 학교 혁신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도 모보다 학교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간접지원 방식이라, 전체 단위학교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
 - 하지만 이 사업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시행되고 있어,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서울시는 2006년 7월 '교육격차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시행했으며, 2007년 '교육지원 4개년 계획'에 따라 우수학교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서울시 차원에서 계획하는 우수학교 지원사업은 성과 산출단계가 아닌 계획 단계로서, 사업의 공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

<벤치마킹 시행방안>

- 서울시도 미국의 Blue Ribbon School Program을 벤치마킹한 학교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학교혁신 프로그램은 초등·중·고등학교의 전반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어야 함.
 - 교사의 교수능력, 학생의 학업성취도, 교장의 리더십 능력, 학생 및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교육만족도 향상,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관심 증대 등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함.

·부분적인 지원이 아닌 종합적인 학교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학교혁신 프로그램은 교수, 연구자, 교사, 학생, 지역 인사, 학부모 등이 팀을 구성해 지역 내 학교를 함께 바뀌어나가는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벤치마킹 기대효과>

-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혁신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다른 학교로 확산하면,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우선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들의 성취감 향상을 통해 사회적 자립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혜숙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lhsook1@sdi.re.kr)

[해외출장 리포트]

싱가포르와 스톡홀름의 혼잡통행료 제도

<개요>

- 혼잡통행료 제도가 시행 중인 싱가포르,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방문해 혼잡통행료 시스템 운영실태를 견학하고,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 배경 및 효과 등을 조사함.

<주요내용>

- 싱가포르의 혼잡통행료 제도
 - 1975년에 ALS(Area Licensing Scheme)란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현재의 운영형태인 전자통행료 지불시스템은 1998년부터 가동됐음.
 - 싱가포르의 교통수요 관리정책은 크게 차량 소유 제약과 이용 제약으로 구분됨. 혼잡통행료 제도는 휘발유세와 함께 차량이용 제약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싱가포르 혼잡통행료 제도의 주요 구성요소는 차내에 장착해 교통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IU(In-vehicle Unit)와 현장 징수시스템인 갠트리(gantry), 갠트리의 운영상태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운영센터임.



싱가포르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기술요소인 갠트리(왼쪽)와 운영센터(오른쪽)

○ 스톡홀름의 혼잡통행료 제도

- 2006년 1~7월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범 실시했고, 2006년 9월 시민투표에서 혼잡통행료 재시행이 결정돼 2007년 8월 1일부터 재시행 중임.
- 2006년 혼잡통행료 시범사업 기간에 교통량이 약 22% 감소(시행 전인 2005년 교통량 대비)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은 2005년 대비 6%(이 중 2%는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따라, 4%는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추정) 증가했음.



스톡홀름 혼잡통행료 징수를 위한 갠트리 시설물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외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시 교통상황 및 자동차 증가율 등을 감안하면 더욱 강화된 교통수요 관리정책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 여건에 맞는 혼잡통행료 제도 확대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첨단 IT 기술 등을 활용하면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효율적인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고준호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jko@sdi.re.kr)

1.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서비스 유통세 30% 환급 (브라질 상파울루주)

○ 브라질 상파울루주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영수증을 통한 서비스 유통세 (ICMS) 30% 환급정책을 도입했음.

- 시민이 식당에서 식사 후 계산할 때 본인의 납세자 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영수증을 요구하면 나중에 서비스 유통세를 돌려받을 수 있음.
 - 영수증은 손으로 쓴 것까지 모두 허용됨.
 -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 실시로 탈세 감소를 기대하고 있음.

- 서비스 유통세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통장 입금 방식으로 환급함. 납세자가 원할 경우 세금 감면액 일부를 타인이나 회사에 이전할 수도 있음.
 - 기업체 역시 식당에서 영수증을 요구할 때 법인의 납세자 등록번호를 밝히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식당에 납세자 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영수증이나 납세 쿠폰을 통해 서비스 유통세 감면액을 적립할 수 있음.

-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2007년 10월에는 식당, 11월에는 술집과 제과점, 12월에는 스포츠용품점과 사진 관련 용품점, 관광업체, 2008년 1월에는 자동차·자전거·오토바이 판매점, 2월에는 건축자재 판매점, 3월에는 사무용품점으로 확대함.

(oglobo.globo.com/sp/mat/2007/10/01/297959740.asp)

2. 옛 공항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주민참여 유도 (베를린)

○ 베를린市에 있는 템펠호프(Tempelhof) 공항이 2008년 10월 폐쇄됨에 따라 많은 전문가가 약 380만㎡에 이르는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음. 베를린市는 옛 공항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 가지 행사를 마련함.

- 첫째, 베를린市 도시개발부가 공항 정보센터에서 ‘템펠호프의 자유’라는 전시회를 열고 시민에게 공항의 향후 이용계획 정보를 제공함.
- 둘째, 베를린 시민에게 템펠호프 공항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버스투어 행사를 마련함.
 - 시민을 초대해 버스로 이동하며 공항을 둘러보는 행사로, 전문가가 동행해 공항의 역사 및 현황 등을 설명함.
 - 이 행사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보여, 市는 향후 버스투어를 다시 실시할 예정임.
- 셋째, 공항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토론하기 위해 온라인 대화공간을 마련하고 2007년 10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운영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710/nachricht2822.html)

(www.berlin.de/flughafen-tempelhof/discoursemachine.php?page=detail&id_item=8993)

3.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 최고 100만 엔 지원 (요코하마)

- 일본 요코하마市와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조언을 하는 ‘챌린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함.
-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마을 만들기, 지역정보 공유, 상가 활성화, 환경·자원 보전, 고령자 및 육아 지원, 어린이 육성 등 지역 커뮤니티의 여러 가지 요구나 과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
-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업자에게 조성 대상 경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 100만 엔(약 800만 원)까지 지원함. 대상자 모집 전에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사업 시작에 앞서 알아야 할 사항을 교육함.
- 심사기준은 지역 공헌도, 계획 실현성, 사업 수익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 대상을 선정함.
- 자금지원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자에게는 사업화 실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연간 10회) 등의 경영 지원을 함.

(www.city.yokohama.jp/me/keizai/happyou/h19/190831.html)

4. ‘워크 라이브 밸런스’ 추진기업 인증제도 실시 (도쿄都 신주쿠區)

- 도쿄都 신주쿠區는 구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의미하는 ‘워크 라이브 밸런스’ 추진기업 인증제도를 2007년 10월부터 실시함. 이 제도는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區가 워크 라이브 밸런스 추진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임.

- 워크 라이브 밸런스 추진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자녀 양육, 지역 활동 지원, 개호(介護) 지원, 일하기 편한 직장 만들기 등의 항목별로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작성해 區에 제출함.
- 특정 항목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그 분야를 추진하는 기업으로 인증함.
- 인증을 받은 기업에 워크 라이브 밸런스 추진기업 인증서를 교부하고, 區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에는 표창할 예정임.

(www.city.shinjuku.tokyo.jp/division/231900josei/home/panfu.pdf)

한줄 뉴스

<브라질>

- 세금 미납 및 연체자 리스트 작성해 신용보호기관에 전달 예정
- 쿠리치바市, '비전통적 수출시장과의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 싱가포르 등 비전통적 수출시장 정보 제공

디지털도시

5. 미술관 건립과정을 웹캠으로 공개 (영국 웨이크필드市)

- 영국 웨이크필드市는 도심 수변공간 재개발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미술관 건립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건립과정을 웹캠 영상으로 공개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함.
- 바바라 헵워드(Barbara Hepworth) 미술관은 2009년 겨울에 개장할 예정인데, 개장까지 2년 동안 미술관 설계와 건축과정을 '웹캠'(HEPCAM)이라는 실시간 웹캠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방영할 계획임.
- 웹캠 영상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저장돼 미술관 건립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있음.

- 헵워드 미술관은 조각가 바바라 헵워드의 이름을 땄으며, 헵워드 트러스트의 기부를 받아 비공개 작품, 미술도구와 재료, 사진, 영상 등을 독점 유치함.
·홈페이지에는 소장 미술품 일부와 한 건축가가 설계한 미술관 건물모형이 사진으로 공개될 예정임.
- 미술관 건축기금은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헤리티지 복권기금(The Heritage Lottery Fund), 웨이크필드市, 요크셔州 개발기금, EU 지역 개발기금, 잉글리시 파트너십(영국 민관투자파트너십 기구) 등에서 조달했음.
- 이밖에 미술관팀이 진행하는 지역사회 연계사업인 'Building Bridges 프로젝트'진행과정도 동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임.
·Building Bridges 프로젝트는, 예술가 4명이 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바바라 헵워드의 조각과 건축 디자인을 소개하고 학생이 스스로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하는 참여 교육프로그램임.

(www.hepworthwakefield.com)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11858)

>>> 전문가 검토의견

- 특정 정부 행동을 기획단계부터 공개하는 것은 최근의 보편적 추세임. 특히 미술관 건축과정을 웹캠으로 공개함으로써 건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그 자체를 하나의 이벤트로 만드는 것은 시민의 관심 유발 차원에서 매우 흥미로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을 기획하고 있는 서울시도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건축과정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나도삼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6. 노인·장애인 전용 콜버스 무료화 (런던)

○ 2007년 10월 8일 런던市가 운행 중인 유료 노인·장애인 전용 콜버스(Dial-a-Ride) 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약 5만여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예정임.

- 연례 런던 장애인 대회에 참석한 런던시장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市 방침에 따라 노인·장애인 전용 콜버스 무료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함.

·무료 콜버스 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며, 장애인뿐 아니라 동행자도 무료 혜택을 받게 됨.

·노인·장애인 전용 콜버스 연간 운행횟수는 120만 건이고, 런던교통공사가 벌어들이는 콜버스 요금 수입은 연간 70만 파운드(약 13억 원)임.

- 런던市는, 콜버스를 비롯해 장애인 및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도어 투 도어'(Door-to-Door) 같은 대안 교통서비스에 투입하는 예산을 2001년 1400만 파운드(약 261억 원)에서 2006년 4000만 파운드(약 746억 원)로 확대 편성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임.

·현재 런던 시내 거동 불편자를 위한 대안 교통서비스는 런던市 관할 콜버스인 Dial-a-Ride, 자치구청 관할의 Taxicard, 사설택시인 Capital Call 등이 있음. 이들 대안 교통서비스의 운영비용은 런던市(85%), 자치구, 국민 의료보험 등의 순서로 부담하고 있음.

(www.london.gov.uk/mayor/equalities/disability_capital)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3993)

>>> 전문가 검토의견

-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Door-to-Door 콜버스는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지원모델임.

·런던의 콜버스 이용료 전면 무료화 사업은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편의성 제고 및 경제 지원 효과가 있음. 특히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장애인과 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임.

- 서울시의 경우, 현재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콜택시의 경우 공급 규모를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단계여서 이용료 전면 무료화보다는 이용료 부담을 줄이고 대기시간 감소 등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김선자 도시사회부 연구위원(sunjakm@sdi.re.kr)

7. 학교급식 이용률 제고방안 제시 (영국)

○ 영국 '교육표준 사무실'(Office for Standard in Education)은 감소 추세에 있는 학교급식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권고사항을 발표함. 이는 27개 학교 중 19개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조사 결과, 학교급식의 우수성 홍보 미흡과 급식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 간의 상호 대화 부족, 다양한 메뉴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 개발에 학생 참여 유도, 다양한 메뉴 개발, 급식장소 환경 개선, 급식장소에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 영세민 자녀에게 무료 급식 제공 등의 권고사항을 발표함.

·또한, 2007년 9월 학교급식의 새로운 표준을 소개하고 교내 사탕 자동판매기를 없애기로 결정함.

(www.ofsted.gov.uk/portal/site/Internet/menuitem.75d4ee5e2788f064728a0d8308c08a0c/?vnextoid=6fcd81afa7065110VgnVCM1000003507640aRCRD)

8. 고용보험법 개정 (일본)

-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용보험금 수급자격, 육아휴직, 교육훈련 관련 조항을 개정한 새로운 고용보험법을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재직기간이 이직일 직전 2년간 12개월(매월 11일 이상 근무) 이상인 피보험자(단시간 노동자 제외)로 고용보험금 수급자격을 일원화함.
 - 육아휴직 지원금은, 임금의 40%(휴직기간 중 30%, 직장 복귀 후 10%)에서 50%(휴직 기간 중 30%, 직장 복귀 후 20%)로 인상됐음.
 - 대상자는 2007년 3월 31일 이후 직장에 복귀했거나 2010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임.
 - 교육훈련 지원금은 기존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된 피보험자에게 교육비 50%, 상한 20만 엔(약 160만 원) 지급'이었던 것이 '재직기간 3년 이상 된 피보험자에게 교육비 20%, 상한 10만 엔(약 80만 원) 지급'으로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
 -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된 피보험자도 당분간은 첫 회에 한해 수급이 가능함.

(www.koho.metro.tokyo.jp/koho/2007/09/koyoho.htm)

한줄 뉴스

- 과천시, 2007년 10월 6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백야 축제' 개최

<런던>

- 2012년 올림픽에 대비해 장애인 체육지도자 150명 양성
- 켄 리빙스톤 시장이, 노스웨스트 런던 칼리지가 시 지원을 받아 새로 지은 최첨단 친환경 건물 개관식에 참석
- 市 동부와 서부를 횡단해 연결하는 도시형 철도 '크로스 레일'(Cross Rail)을 건설할 계획

9. 고령자를 지원하는 ‘포인트 사업’ 실시 (도쿄都 도시마區)

○ 도쿄都 도시마區에 있는 4개 상점가는 고령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과 공통 포인트 카드를 연계한 사업을 2007년 10월부터 시작했음. 이 사업은 NPO 법인 ‘동네만들기 네트워크’가 중심이 돼 운영하고 있음.

-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준 고령자에게서 봉사시간에 따라 10분당 쿠폰 1장을 받는 방식임.

·쿠폰 5장을 모으면 500엔(약 3900원) 상당의 상품권과 교환할 수 있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봉사 내용은 병원 모셔가기, 말동무하기, 독거 고령자 보호 등 현행 개호보험(介護保險)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서비스임.

-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고령자는 쿠폰 6장을 600엔(약 4700원)에 구입하거나 67개 가맹점에서 쇼핑할 때마다 공통 포인트 카드에 400포인트를 모아 쿠폰으로 교환하면 됨.

·100엔(약 780원)어치 물품을 구입하면 1포인트가 쌓임. 400포인트를 모으면 500엔(약 3900원)어치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음.

·공통 포인트 카드는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을 서로 연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연결 끈 카드’라고도 함.

(www.tokyo-np.co.jp/article/tokyo/20071007/CK2007100702054517.html)

한줄 뉴스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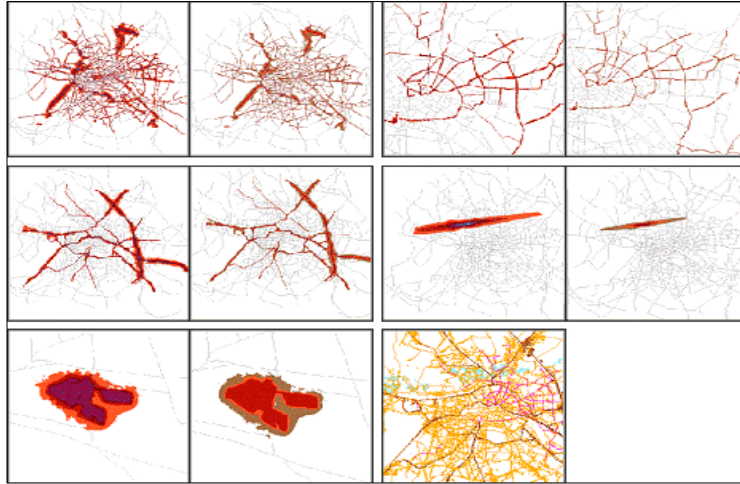
- 피터스버러市, ‘잉글리시 파트너십’과 함께 사우스뱅크 지역에 약 450호 규모로 영국에서 두 번째인 첨단 에코타운을 건설할 계획

- 브래드포드市, 자치구와 학교의 연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결성한 ‘학교 연결 네트워크’가 현재 100여 개 학교가 참여하는 규모로 발전

- 동물 복지의 정의와 표준, 실행방안을 제시한 ‘동물 건강과 복지 전략’ 발표

도시 환경

10. 새로운 소음지도 발표 (베를린)



구역 및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되는 인터넷 소음지도

○ 베를린市는 독일 내 대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시점을 동일하게 맞춘 소음지도 (Laermkarten)를 발표함. 이는 주변환경 소음 평가와 대처를 위한 EU 가이드 라인 실행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됨.

- 2007년 9월 28일 기자회견에서 市 건강·환경·소비자보호부 장관이 새로운 소음지도를 발표하면서, “소음은 건강 위해요소다.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의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은 심장 및 순환계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새로운 소음지도를 바탕으로 소음 감소 실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 새로운 소음지도는 베를린 주요 도로망(1360km)의 소음 상태를 종합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해당 주민에게 구체적인 소음 정보를 제공함.

·약 34만 명의 베를린 시민이 야간에 55dB(A)보다 높은 수치의 소음을 겪는데, 소음영향 연구 결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짐.

·약 19만 명의 주민이 야간에 60dB(A) 이상의 소음을 겪고, 주간에는 대략 27만 3000명이 65dB(A) 이상의 도로 소음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www.berlin.de/sen/umwelt/laerm/laermminderungsplanung/index.shtml)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9/28/86136/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市の 소음지도 발표는, 2007년까지 25만 명 이상 인구가 사는 도시는 의 목적으로 소음지도를 제작하게 한 유럽연합의 효율적인 소음관리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소음지도는 몇 군데 측정지점에 대해 수치상으로만 표현하던 소음을 등고선이나 색을 이용해 지도에 표현함으로써 도시 전반의 소음 영향을 좀 더 쉽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소음관리 방법임.
 - 소음지도를 이용하면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소음 저감대책 시행 효과를 미리 판단할 수 있음.
 - 소음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소음 저감대책 시행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됨.
- 서울시의 경우 교통수요 증대로 인한 교통소음이 상당하고 소음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 따라서 기존의 환경소음 측정망을 통한 측정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소음지도 작성방안을 검토해 효율적인 소음 저감대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최유진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yjchoi@sdi.re.kr)

11. '이산화탄소 저감' 전략 확대 시행 (일본)

-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 이벤트 등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같은 에코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카본 오프셋'(Carbon Offset: 이산화탄소 저감) 전략이 일본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음.
 - 카본 오프셋은 2005년 영국 항공사가 비행기 운항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일부 탑승자에게 대책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시작됐음.
 - 이 제도는 이미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발히 실시되고 있으며,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도 시행돼 주목을 끌었음.

- 일본에서도 한 여행사가 카본 오프셋 요금을 추가한 단체여행을 기획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산화탄소 저감 사업으로 나무 심기를 기획한 사례가 있음.
 - 간벌재(間伐材: 나무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 잘 자라도록 솎아 베어낸 나무)를 이용해 만든 목탄을 땅에 넣어 재배한 ‘카본 오프셋 멜론’을 판매한 경우도 있음.
 - 일본 우정공사(우체국)도 교토의정서의 이산화탄소 저감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08년을 기념하기 위해 ‘카본 오프셋 연하장’을 팔기로 함. 1장에 5엔(약 40원)씩 기부하게 되며, 해외 풍력발전 사업 등에 투자함.
- 일본 환경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방법, 이산화탄소 저감사업 인증방법,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등에 관한 기본지침을 2007년 내로 만들기로 함.

(www.asahi.com/special/070110/TKY200709050159.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세계 각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본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구체화한 교토의정서 채택에 기여한 바 있음.
 -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행 당사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각적인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임.
- 서울 시도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C40 회의 등 국제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이벤트도 개최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나무를 심는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함. 나아가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량 저감사업 인증방법,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함.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12. 바이오디젤을 시내버스 연료로 사용 (브라질 캄피나스市)

- 브라질 캄피나스市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오디젤을 시내버스 연료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캄피나스市는 브라질 최초로 모든 시내버스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음.
 - 2007년 9월 전체 시내버스가 연료 중 2%를 바이오디젤로 사용함으로써 시내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 30% 감소했음.
 - 바이오디젤은 동물성이나 식물성 기름에서 추출한 친환경 연료인데, 캄피나스市는 콩기름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을 사용함. 각 운수회사는 브라질 석유공사에서 바이오디젤을 구입함.
- 시정부는 당초 바이오디젤 사용비율을 2013년까지 5%로 늘리도록 목표를 세웠음. 하지만 이를 2008년으로 앞당길 방침임.

(www1.folha.uol.com.br/folha/cotidiano/ult95u331761.shtml)

13. 시민 한 사람이 나무 한 그루 심기 운동 전개 (파리)

- 파리市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시민 한 사람이 나무 한 그루 심기’ 운동을 제안함.
- 200만 시민이 2000만m²에 나무를 심는 것이 목표임.
- 국제 숲협회(Office National des Forêts International)에 이산화탄소 저감방안 연구를 의뢰함.
 - 카메룬과 아이티 등 개발도상국과 협력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www.1parisien1arbre.com)

(www.paris.fr/portail/viewmultimediacdocument?multimediacdocument-id=33044)

14. 수자원 보호지역 24곳 추가 지정 (영국)

- 영국정부는 강과 호수, 해안가를 따라 수자원 보호지역 24곳(24 Sensitive Areas)을 새로 지정해, 이 지역을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로 결정함.
- 수자원 보호지역 24곳은 약 749km 길이의 강, 운하 지역, 30km²의 하구연 영역임.
 - 정부는, 수자원 회사가 2014년까지 수생태계를 교란하는 인과 질소를 140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줄이도록 규정을 정함.
 - 정부관계자는, 수자원 보호지역이 단지 수자원 보호만이 아니라 수자원 관련 야생 보호, 수변을 즐기는 일상생활 촉진, 물길의 여가활동 이용, 친환경 경시시스템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함.
- 수자원을 이용하는 주민은 약 1만 4000원의 부가 수도요금을 2014년부터 내야 함.

(www.defra.gov.uk/news/2007/070928b.htm)

15. ‘에코·리사이클 페어’ 개최 (도쿄都 분쿄區)

- 도쿄都 분쿄區는 2007년 10월 지구환경을 배려한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을 목표로 ‘에코리’라는 ‘에코·리사이클 페어’를 개최함. 이 행사에서 구민단체와 NPO법인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함.
- 독일 함부르크市 공립학교에서 시작한 에너지 절약활동인 ‘Fifty/Fifty Project’를 소개함.
 - 프로젝트의 내용은, 학교에서 에너지와 수자원 등을 절약하면 절약금액의 50%를 학교에 돌려주고 학교는 그 돈으로 에너지 절약장치 구입이나 특별

활동 수업 등에 재투자하는 것임.

·이 프로젝트는 ‘환경교육, 지방자치단체 비용 절감,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는 3중 효과를 낳음.

- ‘그린 컨슈머’(Green Consumer) 되기, 쓰레기 분리수거 실천 게임, 자전거 재활용·무료 수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음.



청소차에 쓰레기 싣기 체험: 청소차를 직접 조작해 쓰레기 싣기 작업을 할 수 있음. 구민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설명함.



음식물 퇴비로 초록마을 조성: 앙케트에 응모하면 음식물 퇴비로 소형 화분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고급 부엽토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한줄 뉴스

<도쿄>

- 주오區, 구립 어린이·가정지원센터 등의 시설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녀양육 응원채’ 발행
- 미나토區, 구립 보육원에 예술가를 파견해 ‘가까이서 직접 보고 피부로 느끼는 감동’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교류 아트 사업 실시
- 스기나미區, 지역에서 유료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응원권을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정에 배부

16. 주차요금 전화결제시스템 시범 실시 (시카고)

○ 미국 시카고市는 주차미터기 요금을 동전 대신 휴대폰으로 전화해 결제하는 'ParkMagic' 시스템을 시범 실시하고 있음.

-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조수석 창문 안쪽에 58cm²크기의 무선호출기 장치를 부착하고 주차미터기 요금 정산만을 위한 계좌를 개설해 15달러(약 1만 3500원)를 예치해야 함.

·운전자가 휴대폰으로 전화해 주차장 고유 6자리 코드를 입력하면 무선호출기 장치로 주차 만료시간이 자동으로 전송됨.

·시카고 시내에 있는 약 3300개의 주차장에서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전용 계좌에서 자동 인출됨.

- 차 뒷면에 ParkMagic 이용자 스티커를 부착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조수석의 무선호출기 장치에 표시된 주차 만료시간을 확인할 수 있음.

·주차시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주차장으로 갈 필요 없이 전화해서 원하는 시간만큼 연장할 수 있음.

(www.suntimes.com/news/metro/590529,parkpay100507.article)

>>> 전문가 검토의견

- 우리나라는 일정 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주차할 수 있는 Positive 개념의 주차정책을 시행하는 데 반해, 외국은 정해진 지역에서만 주차할 수 있는 Negative 개념의 주차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단속이 없는 한 주차금지 구역에서도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민간 유료주차장은 물론 공영주차장에서도 대부분 주차요원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실정임.

- 외국에서는 정해진 주차장소에 주차미터기(Parking Meter)나 기계식 요금징수 체계를 갖춘 무인주차시스템이 정착돼 있어 요금징수 시 인건비나 인력을 최소화하도록 함.
 - ParkMagic 제도는 주차장 공급자에게는 동전 등 현금관리 인건비를 줄이고 이용자에게는 현금 준비의 불편함을 없애 줌.
- ParkMagic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선호출기 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요금 정산을 위한 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선호출기 보급이 유상이나 무상이나, 유상이면 얼마나 저렴하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우리나라는 무인주차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템 정착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우승 도시교통부 연구위원(wooseung@sdi.re.kr)

17.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신호기 시범 운영 (뉴욕)

- 미국 뉴욕市가 버스정류장 11곳에 다음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알려주는 신호기를 시범 운영함에 따라, 버스 도착시간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됨.
 - 이 신호는 위성위치시스템에서 보내온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맨해튼에서 운행하는 168개의 버스노선에 적용됨.
 - 버스의 위치정보가 위성으로 보내지면 위성에서 브룩클린의 센터로 정보를 전송함. 버스 도착시간뿐 아니라 노선변경 정보도 제공함.
 - 뉴욕市 교통국장은 “2007년 7월에 신호기를 설치한 후 버스와 위성의 접속 상태가 원활하지 않음에도 신호기가 잘 작동되고 있으며, 2007년 말까지 위치시스템을 약 700대의 버스에 더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힘.

(www.planetizen.com/node/27489)

18. 자전거여행 안내지도 무료 제공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런던市 일대를 자전거로 돌아다닐 때 유용한 경로 정보가 담긴 자전거 전용 지도를 개발해 무료 배포함.

- 14개 구간별로 상세 정보를 담아 제작했으며, 지역 내 공원과 수로 등 자전거로 다니기 쉽고 안전한 경로 정보를 수록함.

·자전거를 직접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 전문가의 추천과 자문을 받은 정보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모든 경로를 정리했으며, 런던시내 각종 정숙구간 및 지름길 정보도 담음.

·양면을 모두 활용하고 쉽게 찢어지지 않는 재질로 만듦.

(www.tfl.gov.uk/cycling)

19. 뉴욕시장 런던 혼잡통행료 제도 견학 (런던)

○ 뉴욕市 맨해튼에 도입할 계획인 혼잡통행료 제도와 관련해, 뉴욕시장이 변모하는 런던市 교통시스템을 직접 보기 위해 최근 런던市를 방문함.

- 이번 방문에서 뉴욕시장은 런던시장과 두 도시의 교통시스템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눔.

·뉴욕시장은 런던市가 혼잡통행료 제도를 실시한 후 2002년 시내 진입차량이 21% 감소하고 자전거 이용률이 약 43% 증가한 사실에 관심을 보임.

·징수한 혼잡통행료를 교통 인프라 구축, 자전거 도로 확충, 도로안전 관리에 재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큰 관심을 보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3893)

20. 수상교통 계획으로 수로갑문 건설 (런던)

○ 영국 수로협회(British Waterways)와 런던 교통국(Transport for London),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승객 수상교통 계획으로 약 380억 원을 들여 수로갑문을 리밸리(Lea Valley) 지역에 건설할 계획임.

- 수로협회 관계자는, 갑문 계획이 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수상교통 계획의 첫 번째 프로젝트며, 승객은 물론 화물 수송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함.

·수로를 이용한 화물 수송이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도로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레저용 보트와 수상택시를 위한 공간도 준비 중임.

- 버려진 리 밸리의 물길을 복원하고 수변생태를 살리는 것이 친환경적인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636417/Lock-allow-river-transport-2012-Olympics/)

한줄 뉴스

<베를린>

- 독보적인 방식으로 성주류화에 기여한 여성에게 수여하는 '베를린 여성상' 후보자 공모

- 2007년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10월 8일~14일 제1회 베를린 정신건강 실행주간 행사 개최

- 미테區, 2007년 9월 21일을 '연장자 문화의 날'로 정해 연장자의 창의적 잠재력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 열어

도시계획·건설·주택

21. 대중교통 중심의 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설 (로스앤젤레스)

-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교통국은 대중교통 중심의 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설 프로젝트 'NoHo Art Wave'를 승인함. 약 6만 3130m²부지에 약 1만 5793m²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로스앤젤레스市에서 시행했던 대중교통 중심 개발 중 가장 큰 규모임.
- 이 지역은 지하철 레드 라인과 버스 오렌지 라인이 만나는 곳이라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음. 또한 그동안 낙후됐던 노스할리우드 지역에 상점과 아파트를 포함한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교통국 관계자는 “대규모 쇼핑시설과 아파트가 버스와 지하철 접근이 편리한 이곳에 들어서게 된다. 주민이나 쇼핑객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교통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함.
- 12~20층짜리 오피스 건물 3개, 상점, 문화시설, 560여 세대의 주거공간, 대중교통 이용자만을 위한 주차장 1500개를 포함해 전체 7700개의 주차장이 건설될 예정임.

(www6.lexisnexis.com/publisher/EndUser?Action=UserDisplayFullDocument&orgId=1593&topicId=21355&docId=1:676702395)

22. 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행동기준 수립 (도쿄)

- 도쿄都 도시정비국은 도민이 안심하고 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기준인 '리폼 10'을 수립함.

- 양질의 주택 스톡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리모델링을 실시해 주택의 질을 유지·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고령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장벽 없는’(Barrier Free) 주택 리모델링이 필요함.
- 都는 ‘도쿄都 주택 마스터플랜 2006~2015’를 통해 수명이 길고 질 좋은 주택 건설과 주택을 장기간에 걸쳐 활용하는 시장 실현을 시책 목표로 주택 리모델링에 매진하고 있음.
- 지진발생 가능성과 거주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해 적절한 시기에 주택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www.city.osaka.jp/keizaikyoku/info/info_h241.htm)